https://doi.org/10.36034/yncdoi.2024..88.41

한국 목간기록의 지식 정보 자원화

- 메타데이터 국제 記述 요소를 중심으로 -*

김 경 남**

Ⅰ. 머리말
Ⅱ. 목간기록의 메타데이터 기술 원칙과 표준화의 필요성
1.. 목간기록의 메타데이터 기술 원칙 검토
2.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유형과 표준화의 필요성 검토
Ⅲ. 한국 목간기록의 관리 현황
1. 목간기록의 소장처 별 관리 현황
2. e-뮤지엄 목간기록 메타데이터 정보의 실태
Ⅳ. 한국 목간기록의 통합 정보화 방안
1. 목간기록의 통합 정보화를 위한 절차와 내용
2. 목간기록의 국제 표준 기술과 정보자원화 방안
Ⅴ.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의 목간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그 개념을 살펴보고,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기술 요소를 설계하여, 역사기록으로서 지식 정보 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글이다. 이를 위해 목간기록을 디지털 데이터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출처주의에 기반하여 기록물의 내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를 국제 표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1055801).
** 경북대학교 교수.

에 의해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따라서 목간을 기록물로 보고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 정보자원화하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박물관에서 목간은 유물로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목간에 쓰여진 글자는 종이 기록이 많지 않았던 고대나 중세에 법제와 행정 등 문서나 수발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목간은 기록물로서 종이 기록물과 함께 다룰 때 완결성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목간 기록은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목간의 총수는 약 1,100여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국내 박물관의 총합 채널인 e-뮤지엄에는 약 476건의 목간에 대하여 기술(記述, Description)하고 있다. 기술 요소는 기본적으로 명칭, 다른명칭, 국적/시대, 출토지, 분류, 재질, 크기, 소장품번호, 설명, 연관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정보만으로는 목간의 내용과 관련된 출처와 맥락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ISAD(G), NAK//RMMS 등의 국제 표준에 기반한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박물관 유물로서의 출토와 간단한 내용정보는 물론 고고학, 역사학계 등에서 연구된 정보를 활용하여 목간기록의 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대분류는 6개의 범주로 나누어 기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목간의 디지털 지식 정보를 통합 체계로 만들어 냄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 목간의 지식 정보를 자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한국목간, 메타데이터, 전거레코드, 기술(記述), 지식정보

Ⅰ. 머리말

본고는 한국의 木簡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그 개념을 살펴보고,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기술 요소를 설계하여, 역사기록으로서 지식 정보 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글이다. 기록학계에서는 정보자원을 기술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메타데이터를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목간기록을 국제표준기술규칙을 설계하여 지식 정보자원으로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목간은 북부지역에서 발굴된 기원전 1세기 낙랑유적을 비롯하여 12세기 고려시대와 15세기 이후 조선시대의 해양유적에서 출수되었으며, 부스러기 목간을 포함하여 약 1,100여 건이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관리되고 있다.[1] 목간기록은 종이가 쓰이기 이전부터 문서나 수발을 위해 쓰이던 기록으로서, 종이를 쓰고 난 이후에도 함께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한국 목간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시도가 없었으므로, 본고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試論的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목간을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록학사전에서 보면,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로서,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진다. 기록은 문자, 이미지, 소리 등 모든 매체 형식을 취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기록은 특정 매체나 용기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인간이 기억을 확대하고 설명 책임을 충족시킨다면 박물(Artifact)도 기록에 포함된다고 하였다.[2] 따라서 이러한 개념 규정에 기반한다면 목간도 특정매체나 용

1) 한국 목간의 수량은 38개 유적에서 출토된 1,100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재석 편, 『동아시아 목간 총람 한국목간편』, 주류성, 2022 서문) 앞의 책에서는 1,100여 건의 목간을 대상으로 유적개요, 목간개요, 참고문헌이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하고 있는 e-뮤지엄에 목간의 상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476매(2024년 2월 28일 현재)이다.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https:// www.emuseum.go.kr/main). 목간은 매, 점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기록물로 다루는 경우 건과 철로 명명할 필요가 있다.

기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역사적 기억의 저장 공간으로서 이를 공유한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간의 설명 책임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간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자문화권으로 분류되어 온 전근대 동아시아의 목간 기록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한국·중국·일본·베트남 등에 대해 정치적 경계를 허물고 동질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일종의 인문학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3)]

하지만 한국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에는 그 잔존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목간기록은 그 간극을 메워주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재료로 기능하고 있다. 역사학·문헌학 연구자들이 목간에 주목하게 된 것은 최근 고고학적 발굴의 증가와 더불어 낙랑 및 삼국시대 유적지에서 문자자료 및 필기도구가 적지 않게 발굴되었기 때문이다.[4)]

이렇게 한반도에서 목간이 다수 출토됨으로써, 기존 종이기록물 중심의 기록문화의 연구대상 시점과 영역을 기원전 1세기 한반도 북부에까지 넓혀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졌으며, 중국과 일본의 목간까지 포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5)] 따라서 목간 연구는 근래 역사학계

---

2)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48～49쪽.

3) 윤재석 편, 앞의 책, 2022. 한국목간총람의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총괄: 이용현, 낙랑: 윤용구, 신라, 백제, 고려, 조선: 이동주, 이용현.

4) 1975년 목간이 출토된 것을 비롯하여, 신라의 왕경 경주를 비롯하여, 서울, 함안, 김해, 나주, 신안, 대구 등에서 출토되었다. 한국 목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것은 윤선태,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신라사학회, 2016 참조.

5) 한국에서는 목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목간학회가 만들어져 학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19년부터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연구소에서 한·중·일 목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 목간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들은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굴된 약 40~50만매의 춘추전국·진한·위진시대의 목간과 약 7~9세기에 사용된 약 40만 점의 일본 출토 목간에 대한 연구로 그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윤재석 편, 앞의 책, 2022 서문). 윤재석 편, 『중국목간총람』 상중하, 주류성, 2022; 윤재석 편, 『일본목간총람』 상하, 주류성, 2022: 이승호·이완석·방국화, 『물품으로 본 고대 유라시아 세계』, 경인문화사, 2022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의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 일국사적 관점의 편향성을 보완할 뿐 아니라 한국고대사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 동력기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6]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목간 기록은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목간기록은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유물로 다루고 있으며, 발굴 지역이 상이함에 따라 각각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목간기록은 보존 기관의 형편에 따라 상당히 다른 물리적 보존 조건과 정보의 記述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 박물관의 총합 채널인 e-뮤지엄에는 476건의 목간이 사진과 함께 기본적인 개요가 쓰여져 있다.[7] 이에 대한 각 박물관의 기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대, 형태, 재질, 크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8] 하지만 대다수의 박물관에서는 목간을 유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목간에 쓰여진 기록물의 내용과 맥락과 관련된 기록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간을 기록으로서 다룰 경우에는 다른 기록물들과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에 의거하여 기술 방안을 설계하여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는데, 정확한 기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학, 서지학, 고고학, 기록학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목간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9]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박물관에서 다루고 있는 유물 목간을 기록물의 관점에서 보고,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기록물의 내용과 구조,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를 설계하고자 한다.[10] 나아가

---

6) 주보돈,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 한국목간학회, 2008.

7)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제공하지 않으나,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관련 자료로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https://www.emuseum.go.kr/main.

9) 한국 목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목간 총람』이 기본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정보에 더하여 고고학적 발굴 과정의 내용을 추가하고, 관리 이력, 목간 기록간의 관계성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목간의 서지학적 연구는 남권희, 「한국 도서관사 연구자료로서의 목간기록 및 서지자료로서의 목간 분석」, 『서지학연구』 84, 한국서지학회, 2020 참조.

10) 메타데이터 표준과 출처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T. R.. Sehellenberg, *Modern*

박물관에 산재해 있는 목간 유물의 원본 보존은 그대로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디지털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목간 기록을 수집하여 통합적으로 지식 정보자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현재 목간기록물과 그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목간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연구소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목간기록물의 정보자원화를 위해 통합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국제 보존기록 기술규칙(ISAD(G):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국제 기록 전거레코드 규칙(ISAAR(CPF):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NAK/RMMS: National Archives of Korea/Records Management Metadata Standards)을 기본으로 하여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 기술 요소를 설계하고자 한다.[11] 이때 목간기록의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고학적 출토-사료학적 탈초-역사학적 해석 등의 순서를 거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합 기술 요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방효순, 「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한국기록관리학회, 2002; 남궁황, 「ISAD에 기반한 공문서 메타데이터 요소 설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1, 한국정보관리학회, 2004; 김익한, 「기록의 속성과 메타데이터 표준을 통해 본 한국의 기록, 기록기술」, 『기록학연구』 10, 한국기록학회, 2005: 설문원, 「기록관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 분석: 출처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2, 한국기록학회, 2017; 김경남,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수집현황과 기술규칙 제안」, 『기록학연구』 71, 한국기록학회, 2022 등

11) ICA. ISAD(G)2: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Ottaw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committee on descriptive standards. 2000; 남궁황,「ISAD에 기반한 공문서 메타데이터 요소 설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1, 한국정보관리학회, 2004.; 김익한, 「기록의 속성과 메타데이터 표준을 통해 본 한국의 기록, 기록기술」, 『기록학연구』 10, 한국기록학회, 2005; 김성희,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를 통한 맥락정보의 구축 및 교환: ISAAR(CPF) 2판과 EAC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비블리아학회, 2007; 김수현·이성숙, 「RiC-CM을 적용한 영구기록물 기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 한국기록관리학회, 2020.

Ⅱ. 목간기록의 메타데이터 기술 원칙과 표준화의 필요성

1. 목간기록의 메타데이터 기술 원칙 검토

메타데이터는 정보자원을 기술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면 메타데이터 기술 요소의 표준화 원칙은 무엇일까. 표준화 원칙에 대한 검토는 목간기록의 정보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단계로서, 메타데이터는 다양한 요소들을 마련하여 정보자원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기술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12)]

Shepherd & West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는 “기록의 생애주기 동안 기록을 관리, 검색,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록에 관한 데이터”로 정의하였다.[13)] 또한 ISO15489-1에서는 메타데이터(3.12) 기술 영역에 대하여 기록의 맥락(context)에 대한 정보를 중시하고 있으며, 내용(content), 구조(structure), 일정 기간에 걸친 기록관리 이력을 기술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14)] 그만큼 기술을 할 때 맥락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SO에서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필수 영역에 대해서 업무, 기록관리, 이용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15)] 목간기록의 경우에는 이러한 필수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목간기록의 맥락을 찾고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려면 장기적으로 고고학, 박물관학, 역사학, 기록학의 협업구조를 통해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해야 한다. 협업을 통해 낱낱이 떨어져 있는 목간기록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간기록의 맥락과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최근 한국목간학회를 비롯하여 박물관, 연구소 등에서 목간에

12) 설문원·조원희,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의 실행 적합성 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215쪽.
13) Shephrd, Elizabeth and Victoria West, “Are ISO 15489-1: 2001 and ISAD(G) compatible? Part 1, Records Management Journal 13(1), 2003, 9~23쪽.
14)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조은글터, 2018, 234쪽.
15) ISO 23081-1:2017,5.2.1.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됨에 따라 가능한 것이다.

또한 기록관리 표준화를 위해 메타데이터는 기록 관리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목간의 경우에는 연구소나 박물관, 대학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e-뮤지엄의 기본적인 기술 이외에는 각각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요소가 모든 다른 실정이다. 따라서 메타데이터 표준을 통해, 기록에 대한 접근 및 통제, 보존, 처분, 평가 등 모든 기록 관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간기록의 관리에 대한 추적 과정을 통해 내용, 구조, 맥락 뿐만 아니라, 이용내력 및 보존과 통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ISO 15489에 의하면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목간기록의 경우에도 ISO에서 제시한 기록의 4대 품질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적절하고도 충분한 메타데이터를 획득하고 생산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는 단순히 자원발견을 위한 메타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게 된다. 목간기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목간은 한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물로서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별도의 목간기록 통합 보존관리 기관이 세워지지 않는 한, 현행 그대로 원본은 박물관/연구소에서 보존하고 목간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메타데이터에 수록된 요소들이 정보자원의 기술과 관리에서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크게 기술적 메타데이터, 관리적 메타데이터, 구조적 메타데이터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16] 記述的 메타데이터(Descriptive Matadata)는 정보자원을 기술하고 식별하는데 중점을 두는 메타데이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서지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정보자원에 수록된 콘텐츠 및 형식 등을 상세하

16) 설문원·조은희,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의 실행 적합성 평가 - 맥락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게 기술해 줌으로써 정보자원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정 정보자원을 다수의 자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또는 찾아낸 자원이 다른 유사 자원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용자의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자원들을 어떻게 선별해 낼 것인지 등을 다룬다. 기술적 메타데이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 Dublin Core(Dublin Core Metadata Element Set), VRA Core(Visual Resources Association Core Categories) 등이 있다.[17]

MARC 레코드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정보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더블린 코어(Dublin Core) 등과 같은 기술적 메타데이터가 널리 쓰이고 있다.[18] 이 외에도 목간기록의 정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적 메타데이터(Administrative Metadata)[19]가 필요한데, 목간기록의 경우에는 각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유한 등록번호, e-뮤지엄에서 관리하는 등록번호, 발굴기관이나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목간을 관리하는 보존방법과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간기록에 대한 구조적 메타데이터(Structural Metadata)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목간기록의 예를 들면 각각의 목간들은 여러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장은 독립된 여러 페이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e-뮤지엄의 웹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첫 메인 화면 속에 여러 개의 독립된 화면들이 트리구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20] 구조적 메타데이터는 정보자원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데이터로 기록한 후 검색되어진 특정 정보자원을 이용하려는 이용자

17) 기술적 메타데이터의 구체적인 수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18) 남태우·이승민, 「메타데이터의 의미론적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한국문헌정보학회, 2010, 374쪽.
19) 노영희, 『기록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한국학술정보, 2008, 26쪽.
20)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detailSearch.

에게 자원의 구조적 특성을 알려준다.[21]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메타데이터는 기술적 및 관리적 메타데이터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관리적 메타데이터 혹은 기술적 메타데이터에 사용되는 일부 요소들은 구조적 메타데이터에 적용되기도 한다. 결국,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주된 목적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구조적 메타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각 메타데이터에 수록된 다양한 요소들은 이러한 모든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미적 범위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

2.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유형과 표준화의 필요성 검토

국제표준으로 제시하는 메타데이터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22] 기록 자체에 대한 것, 업무규칙이나 정책과 법규, 업무 활동이나 과정, 기록관리 과정, 메타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등이다.[23]

<표 1>국제표준 메타데이터 유형

순번	구 분	내 용
1	기록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 생산일시, 생산자, 물리적·기술적 속성에 대한 기본 정보 - 기록의 위치, 집합계층, 관련자 및 업무프로세스, 주제 · 분류에 대한 정보 - 접근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업무규칙이나 정책과 법규에 대한	- 업무활동과 기록 생산관리 및 접근에 적용되는 규정상 요건에 대한 정보 행위 주체에 관한 메타데이터

21) 노영희, 앞의 책, 26쪽. 관리적 메타데이터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있다. IMS(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s Matadata), METS(Metadata Encoding & Transmission Standard), METSRight, OAIS(Reference Model for an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22) 노영희, 앞의 책, 2008, 174~175쪽.

23) 이해영, 『기록의 분류 기술과 검색도구』, 선인, 2020.

	메타데이터	- 생산자 및 조직에 관한 정보 - 기록 관리에 관련된 사람 및 조직에 대한 정보와 부여된 권한 -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 및 조직
3	업무활동이나 과정에 관한 메타데이터	- 기록이 발생된 업무기능 및 활동에 대한 정보와 연계 - 기록과 기록생산에 관여된 사람 및 조직과의 연계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보안, 접근규칙에 대한 정보 - 기록이 발생된 업무 기능 및 활동과 기록을 분류하도록 하는 정보
4	기록관리 과정에 관한 메타데이터	- 특정 기록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사람 및 조직 인가에 대한 정보 - 기록과 기록계층, 기록과 기록 생산에 관여한 사람 및 조직의 연계에 대한 정보 - 장기 보존을 위해 필요산 사항에 대한 정보 - 기록 처분에 대한 정보
5	메타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	- 위 다섯 가지 메타데이터 기록에 대한 정보

기록관리에서 국제 메타데이터 표준은 ISO 23081로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생산·관리 ·활용하는 틀을 제시하고, 메타데이터를 통제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24] 기록이 생산되고 관리되는 기본구조는 행위자(agents), 기록(records), 업무(business)의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기록관리'가 조직 업무와 연계되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록관리업무 영역이 추가되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소관 법령과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법규(mandate) 영역이 포함되었다.

국제기록학협회에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위한 다중 개체 모형(multi-entity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메타데이트를 기록·행위자·업무·법규·관계(relationship) 등 5

24) ISO 23081의 제1부에 해당하는 ISO 23081-1(Information and documentation--Records management processes--Metadata for records, Part 1 : Principles)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원칙을 다루고 있는데 2006년에 초판이 발간되었으며 2017년에 개정판이 공표되었다.

개 개체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구조다. 다중 개체 모형의 핵심 요건은 개체 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며, 특히 기록 개체와 연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25]

기록의 통합 검색과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ISO 230181-1과 ISO/TS 23081-2를 그대로 국가표준으로 수용하였다.[26] 또한 국가기록원은 2007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 표준을 공공표준으로 제정하였으며, 이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요소를 표준화함으로써 메타데이터의 이관, 메타데이터 통합 및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러 박물관이나 연구소에 산재되어 있는 목간 기록의 경우에도 기록물의 통합 검색과 메타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하다. 목간 기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질에 따른 물리적인 보존과 목간에 쓰여진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를 작성하고 그 데이터를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리적인 보존은 목간의 재질과 관련된 것으로서 목간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데이터를 보존 관리한다는 것은 목간에 쓰여진 글자를 해독하고, 어떤 내용인지 분석하여, 정보자원화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목간에 쓰여진 글자와 내용을 조사·분석한 데이터를 정보자원화하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기록물의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 관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기록물을 박물관에 이관해 오면, 새로 입수된 자료에 대하여 최초의 물리적, 행정적, 법적, 지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

25) KS X ISO/TS 23081-2, 6.3.

26) KS X ISO 23081-1(문헌정보-기록관리과정-기록메타데이터-제1부:원칙), KS X ISO 23081-2(문헌정보-기록관리과정-기록메타데이터-제2부: 개념과 실행 고려사항).

업은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그 관리를 옮겨오는 것이고 또한 기록물의 성격과 출처를 확인하고 그것들의 물리적 상태와 지적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중대한 활동들을 포함한다.[27]

목간을 이관해 오면 가장 중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목간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다. 즉, 목간을 생산한 사람이나 기관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기록학에서는 원 질서 존중 원칙이 기본적이지만, 목간 기록은 파편적인 상태가 많기 때문에 기록학에서 말하는 원 질서 존중 원칙을 지키기 쉽지않다. 따라서 목간의 내용을 분석하여 목간을 재분류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은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목간을 이관할 때 법적, 지적, 물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가목록과 선행 조사한 목간 이동 등의 맵핑을 통하여 기록 더미를 대략적으로 가분류할 수 있다. 이때 목간 간의 관계도를 그려봄으로써 컬렉션의 사적, 공적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대략적인 가분류를 통해 목간 기록에 대한 분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목간의 시리즈를 형성할 수도 있다.

Ⅲ. 한국 목간기록의 관리 현황

1. 목간기록의 소장처 별 관리 현황

한국에서 출토된 고대 목간은 현재 1,100여 건이며, 6세기에 사용된 것이 발견되었으나 점차 빠른 시기의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고려 목간은 태안 침몰선에서 170여 점이 나왔고 조선 목간은 태안마도 4호선에서 63점이 출토되었다.[28]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종이 문서가 사용되

27) Fredric. M. Miller, 조경구 역, 『아카이브와 메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진리탐구, 2002, 53쪽.

던 시기이므로 목간은 대부분 화물의 꼬리표로 기능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비해 고대 목간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서와 꼬리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였다.

고대 목간의 대부분은 신라 목간이다. 신라 목간은 지역적으로 수도인 도성과 지방의 관청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도성에서 나온 목간은 경주의 월지, 월성 해자, 인용사지 등 궁궐과 사찰에서 발견되었다.[29] 지방에서는 함안 성산산성, 하남 이성산성, 김해 봉황대, 창녕 화왕산성 등과 같이 산성 내의 관청이나 저수지에서 나왔다. 이 중에서 함안 성산산성 목간은 내용으로 보아 56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보다 100년 이상 앞선 연대를 보여준다. 수량으로는 적으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백제 목간이다. 백제 목간도 대부분 수도인 부여에서 발견되었고 지방에서는 금산 백령산성과 나주 복암리 관청 유적에서 출토되었다.[30]

우리나라의 목간은 문서 행정에 사용된 문서 목간과 화물의 꼬리표로 사용된 하찰 목간이 있다. 그런데 수량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꼬리표 목간이다. 목간이 사용된 6세기 이후는 이미 종이 문서가 사용되던 시기였으므로 문서는 주로 종이에 적어 사용하고 목간은 짐의 꼬리표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목간을 기록으로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묵서의 유무이다. 그 다음으로는 목간의 재료와 형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학계는 목간에 대한 표기, 호칭 등이 각각 다르게 표기되고 있으며, 통일된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않고 있다. 크게 세 분류로 살펴볼 수 있다.

고대 목간의 분류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현재까지 목간은 형태별 용도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목간의 형태별 분류는 이경섭이 장방판형, 다면형, 원주형, 홈형, 기타로 나누고

---

28) 윤재석 편, 앞의 책, 2022, 서문.

29) 윤재석 편, 앞의 책, 2022. 198~199쪽. 이 사전은 최근 한국목간을 거의 망라하여 작성한 책으로서, 이후 특히 주석을 달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책의 내용에 따름.

30) 윤재석 편, 앞의 책, 53~195쪽.

있다.[31] 한정훈은 성산산성의 목간을 사례로 구멍형 목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32] 따라서 목간의 형태별 분류는 장방판형, 다면형, 원주형, 홈형, 구멍형, 기타 목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목간의 용도 분류는 문서목간, 꼬리표목간, 기타목간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문서목간은 다시 記錄목간과 문서목간으로 구분한 후, 기록목간은 다시 帳簿, 集計, 傳票(支給/請求 등),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꼬리표 목간은 짐꼬리표(荷札), 물품꼬리표(物品附札)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기타목간은 呪術/儀禮, 글자연습(習書), 명함용, 典籍類 목간(논어 등), 기타 書簡 등으로 분류하였다.[33]

이러한 분류 방식은 목간 연구를 하거나 박물관에서 관리하기 용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학적 관점에서 보면, 출처 즉 누가 생산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분류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유적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여러 가지 용도별로 출토되었을 때 원 질서를 무시한 채, 무작정 형태별, 용도별로 분류하는 것은 목간의 원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유적지별로 원 질서를 그대로 둔 채,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생산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출처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목간기록은 현실적으로 원 질서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출처 중심으로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것은 목간이 발굴되는 장소가 대부분 산성이나 궁궐터의 우물이나 하치장 등과 같은 곳으로서, 목간이 놓여진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리고 같이 묻

31) 이경섭,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신라문화』 42, 신라문화원, 2013.

32) 자세한 것은 한정훈, 「고대 목간의 형태 재분류와 고려 목간과의 비교-성산산성 목간을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 16, 한국목간학회, 2016.6 참조.

33) 출처주의에 대한 것은 다음을 참조. T. R. Sehellenberg,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설문원, 「기록관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 분석: 출처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2, 한국기록학회, 2017, 59~117쪽.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의 세계』, 2024.

혔다고 하더라고 진흙 속에서 목간이 썩지 않고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글자 하나 하나를 모두 판독한 이후에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이므로, 누가 생산했는지 그 출처를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목간기록은 원 질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판독부터 해야 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형태와 용도별로 나누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기록학적 관점에서 원 질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원 질서를 사진으로 남기고, 놓여진 순서에 따라 기본적인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물을 최초로 발굴할 때 부여하는 유물 번호를 최초의 기본적인 관리번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형태별, 유형별에 따라 관리번호를 하나 더 부여하는 방법으로 목간기록물을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목간기록을 관리할 때 典據制御를 위한 번호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것은 목간기록을 가장 알기 쉽게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시대별 분류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출토된 목간기록은 6세기 것이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목간을 시대별로 나누면,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눌 수 있다. 국별로 나누면 고대는 4세기~10세기 초까지 신라, 백제, 고구려(낙랑)로 나눌 수 있고, 중세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고려시대, 1392년부터 1897년 대한제국이 설립되기 전까지 조선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대상은 한국목간총람에 나와 있는 목간기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대별로 분류하면 대표적인 木簡群은 다음과 같다.[35]

34) 주보돈,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 한국목간학회, 2008.
35) 목간군은 같은 유적지에서 발굴된 목간들이라는 뜻이다.

<표 2> 시대별 목간의 분류와 출토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수량 (소계: 401매)	소장처
삼국 시대	신라	경주 월성해자목간	왕경 관청	3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함안 성산산성 목간	함안 가야읍	245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함안박물관
		경산 소월리 목간	경산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하남 이성산성 목간	하남	14	한양대학교 박물관
		서울 아차산성 목간	서울	1	한성백제박물관
		김해 양동산성 목간	김해	3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 봉황동 목간	김해	1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 배산성 목간	부산	1	부산박물관
		창녕 화왕산성 연지 목간	창녕	5	경남문화재연구소
		남원 아막성 목간	남원	1	군산대학교 박물관
		안성 죽주산성 목간	안성	2	국립중앙박물관
		익산 미륵사지 목간	익산	2	국립부여박물관
		대구 팔거산성 목간	대구	1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원
	백제	부여 구아리 319번지 목간	부여 구아	8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관북리 목간	부여 관북	7	
		부여 궁남지 목간	부여 궁남	3	
		부여 능산리 목간	부여 능산	30 (125)	
		부여 쌍북리 뒷개 목간	부여 쌍북	2	
		부여 쌍북리 현내들 유적 목간		9	
		부여 쌍북리 56번지		5	
		부여 쌍북리 102번지		2	
		부여 쌍북리 173-8번지 목간		3	
		부여 쌍북리 184-11번지 목간		1	
		부여 쌍북리 280-5번지 목간		3	
		부여 쌍북리 201-4번지 목간		2	
		부여 쌍북리 328-2번지 목간		3	
		부여 석목리 143-16번지 목간	부여 석목	2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목간	부여 동남	1	

		금산 백령산성목간	충남 금산	1	
		나주 복암리 관청유적목간	전남 나주	1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박물관
		정읍 고사부리성 목간	전북 정읍	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고구려(낙랑)	평양 석암리 194호분 죽간	평남 평양	1	조선고적연구회
		평양 남정리 116호분 목독		1	조선고적연구회
		정백동 3호분 목간		3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낙랑동 1호분 목간		6	
		정백동 364호분 간독		120여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출처1)	소분류(출처2)	수량	소장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경주 월지(안압지)목간	왕경 관청	6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傳인용사지목간	왕경 사찰	1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황남동 376번지 목간	왕경	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목간	왕경	2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영남권수장고 동쪽부지)목간	왕경	2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황룡사 남측 도로 목간	왕경	1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傳황복사지 목간	왕경 사찰	1	성림문화재연구원
		인천 계양산성 목간	인천	2	인천계양산성박물관
		장수 침령산성 목간	장수	1	군산대학교 박물관
	발해				
고려시대	고려	태안 대섬 침몰선(태안선)	충남 태안	20	태안보존센터
		태안마도 1호선		69	
		태안마도 2호선		47	
		태안마도 3호선		35	
		울산 반구동		1	울산박물관
조선시대	조선	태안마도 4호선		63	태안보존센터
		여주 파사성		1	한성문화재연구원
합계				310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 신라국의 경우, 수도 경주의 궁궐에서 월지, 월성해자 목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찰의 인용사지 목간기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는 산성목간으로서, 함안의 성산유적, 김해의 봉황대, 창녕의 하왕산성 등이 대표적이다. 백제의 목간은 충남 부여는 물론 금산의 백령산성, 나주의 복암리 관청유적, 경기도 하남의 이성산성 등에서 발굴되어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목간이 발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북국시대를 통일신라와 발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해 목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향후 인식의 범위를 확장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된다. 통일신라 시기의 유적은 경주의 월지(안압지), 傳경인용사지 목간, 인천 계양산성, 장수 침령산성 출토 목간이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목간기록이 발견된 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다. 목간은 주로 왕궁, 사찰, 바다 밑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기록물의 장소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관청의 행정업무나 사찰의 행정업무,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소성을 토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목간기록의 장소성을 통한 분류

구역	지역	시대	출토지	출처	소장처
경북	경주	신라	월지	궁궐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월성 해자	궁궐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인용사지	사찰	국립경주박물관
경남	함안	신라	성산유적	산성	함안박물관
	김해	신라	봉황대	산성	김해박물관
	창녕	신라	하왕산성	산성	창녕박물관
충남	부여	백제	구아리, 관북리, 쌍북리	궁궐	국립부여박물관
	금산	백제	백령산성	산성	국립부여박물관
전남	나주	백제	복암리 관청유적	관청	국립부여박물관
경기도	하남	백제	이성산성	산성	한양대학교 박물관

위의 표와 같이, 목간은 수도의 궁궐이나, 지방의 관청, 각 지역의 산성에서 주로 발굴되고 있다. 이 사실은 중앙관청과 지방관청, 각 지역의 산성에서 목간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앙이나 지방관청에서는 주로 문서목간을 활용하였으며, 각 지역의 산성에서는 기록목간이 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e-뮤지엄 목간기록 메타데이터 정보의 실태

먼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물관에서는 목간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목간기록의 총합 관리 대상은 현재 학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스러기 목간까지 포함하여 1,100여 건을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e-뮤지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476건으로, 이 목간기록을 우선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현재까지 기본 기술요소가 기재되어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다.

<표 4> 박물관별 記述된 목간의 수량

번호	박물관명	수량	번호	박물관명	수량
1	국립중앙박물관	158	10	국립고궁박물관	2
2	국립경주박물관	13	11	부산광역시박물관	2
3	국립부여박물관	96	12	울산박물관	1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7	13	대성동고분박물관	3
5	함안박물관	20	14	계양산성박물관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1,100여 건 중에 e-뮤지엄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은 2024년 2월 현재 476건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목간을 함께 기술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36] e-뮤지엄의 메타데이터 기본 정보는 소장지역, 소장구분, 소장기관, 지정문화재, 국가/시대, 재질, 대분류,

36) e-뮤지엄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작성함.

크기, 출토지역 등이다. 각 항목은 전국에 목간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을 대상으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기본정보는 모든 박물관과 연구소가 제공하고 있는데, 목간의 사진과 함께 명칭, 다른 명칭, 국적/시대, 출토지, 분류, 재질, 크기, 소장품번호를 기술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소장품설명과 연관단어를 제공하고 있다.[37] e-뮤지엄에서는 재질과 국적/시대가 유사한 소장품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38]

<표 6> e-뮤지엄 기술 요소

명칭	목간
다른명칭	木簡
국적/시대	한국-백제
출토지	충청남도 부여군
분류	주-생활용품/가전-문방구
재질나무	기타
크기길이	6.2cm, 너비 3.2cm
소장품번호	부여 29138
소장품설명	
연관단어	

국립부여박물관 소장품, 부29138 목간

한편 e-박물관이어서 흥미로운 것은 재질이 유사한 소장품이 다수 검색된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라남도 신안 23582번 목간은 중국-원나라 화물표 목간으로 재질이 유사한 소장품이 468건으로 검색되고 있고, 국립해양연구소 소장 충남태안군 마도 2582 목간은 재질 유사 소장품이 82,430건이나 검색된다. 호패, 발우, 문서함,

37) 부여박물관 29138 목간의 경우 소장품설명은 109번 목간. 홀형 목간. 문자는 두 면 중 앞면에서만 2단으로 각각 3행씩 적혀 있고, 연관단어는 #부여29138번 #책 #목간으로 기술되어 있다.

38) 부여박물관 소장 목간 57047, 57046, 57045, 57044, 56992, 56974, 56973, 56972, 56971, 56970 등.

나희탈-儺公, 만묵당 책판, 시전지판, 담배 보관함, 화약통 등이다. 국적/시대가 유사한 소장품은 511,144건으로 동곳, 문서함, 상평통보, 戰服, 간찰 2364 등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수원화성, 대전광역시 시립박물관, 수원화성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검색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유물이 검색됨으로써 오히려 맥락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모든 박물관의 유물은 소장품 검색을 비롯하여 국보·보물검색, 3D검색 등 다양한 형태로 유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보급이나 문화재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목간과 같이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유물은 정보가 상대적으로 소략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간의 디지털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목적(학술논문, 상업출판, 교육,. 광고, 방송, 문화상품, 전시, 모사, 웹사이트, 기타)과 상세목적, 기타의견을 상술하도록 항목을 설정하였다. 제1유형 출처표시 저작권 보호분야 '목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뮤지엄에서 제공하고 있는 목간에 대한 기술 정보는 다른 유물과 같이 유물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유물에 비해 소장품 설명과 연관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목간은 유물이기도 하지만 기록으로서 다룰 때 훨씬 더 가치와 활용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목간은 종이기록물을 대신하던 기록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목간은 사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당대의 왕궁이나 사찰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쓴 기록이다. 이렇듯 목간은 기록의 개념에서 필수요건인 당대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간에 쓰여 있는 글자를 기록으로서 별도로 추출하여 통합 디지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Ⅳ. 한국 목간기록의 통합 정보화 방안

1. 목간기록의 통합 정보화를 위한 절차와 내용

목간기록의 디지털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대체로 ① 대상 설정 및 이미지 수집 ② 탈초·번역 및 관련 자료 수집 ③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④ DB구축을 통해 기록정보화를 완료하는 프로세스이다.

먼저, 목간기록의 통합 관리 대상을 설정하고, 대상 기록의 이미지를 수집해야 한다. 목간은 현재 1,100여 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남북한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디지털 통합 기록물시스템의 관리 대상은 글자가 쓰여있는 목간에 한하여 수록할 필요가 있다. 학계 연구자 중에서는 부스러기 목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부스러기 목간에 대해서는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 항목만 개설하고자 한다.

<그림 1> 한국 목간 분포 현황

윤재석 편저, 『한국목간총람』, 주류성, 2022, 27쪽

둘째, 기록정보화를 위해서는 탈초·번역을 하던지 기존의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 자료는 발굴기관, 연구기관, 학술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목간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굴되지만 최근 남한에서 발굴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기관은 박물관, 연구소,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 5> 기록정보화를 위한 수집 대상 기관

연구소 및 관련학회	박물관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백제문화재연구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충청문화재연구원, 한백문화재연구원 화랑문화재연구원, 한국목간학회,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국립중앙박물관, 충남대학교 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함안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울산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계양산성박물관, 조선민화박물관 가회민화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10개소	17개소

위와 같이, 목간은 유물로서 발굴기관과 보존기관이 각각 다르며, 목간을 연구하는 연구소나 학회에서도 기록정보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따라서 목간기록의 출토로부터 분석, 보존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출처별로 기록 정보화 내용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목간의 출토정보, 분석정보, 보존정보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며 본고에서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가해야한다.

목간이 사료로서 인용되고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목간학회의 역할이 크다. 이 학회에서는 매년 새로 발굴되는 목간을 탈초하고 번역하여 관련 연구를 계속하였다. 더욱이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연구소를 중심으로 목간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한국 목간은 물론 일본과 중국 목간을 아우르는 학문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의 학회지와 각종 국제심포지움 발표지, 한국목간사전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목간사전은 목간기록 정보의 수집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목간기록의 분류와 국제적인 기술규칙에 기반한 목간기록물의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 기술 표준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상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메타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목간기록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간기록의 기술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메타데이터 기술 요소를 문서목간, 문헌목간(논어목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 조사의 대상이 된 문서목간의 메타데이터는 인명, 지명, 물품명과 수량, 연도, 관직명, 이두표기 등 기록의 맥락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품명은 종이, 곡물, 항아리, 농경지, 약재, 소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호가 쓰여 있는 목간도 있어 제작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의 관직명에 대한 연구는 금석문과 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으나 목간에서 새로운 관직명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이두표기를 문서목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문서목간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수발 文書木簡, 帳簿木簡, 초고기록목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용도별로 보면, 수발 문서목간은 공문서와 편지글 형태의 사문서로 세분할 수 있다. 장부목간의 종류는 곡식의 출납을 기록한 장부, 인명을 기록한 장부, 곡식의 대부사실을 기록한 장부, 재산을 기록한 촌락문서 등 다양하다. 정식 문서를 제작하기 전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 초고 기록목간에서도 처방전, 출석명부, 전공의 기록, 판결문, 보고문 양식, 구구단표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9]

이런 다양한 형식, 형태의 목간이지만 그 기록내용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영역별로 구분하면 문헌의 저자사항, 발행사항에 해당하는 기록과 기록물의 수록내용과 더불어 표기에 관련된 당시 서술체계 즉 이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DB구축과 디지털 통합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기록정보화를

39) 남권희, 앞의 논문, 43쪽.

완료한다. 목간의 메타데이터 설계에 따라, 각 항목을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모두 입력한 이후에 디지털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한 기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목간기록의 국제 표준 기술과 정보자원화 방안

메타데이터 표준화 원칙에 따라 목간기록을 정보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분류 설계가 필요하다. 목간기록의 분류 설계는 해당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기록의 수량, 형태, 내용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집되는 컬렉션은 목간이 수집되는 출처에 따라 다르며 생산되는 목간의 질적, 물리적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목간 기록의 분류 설계와 정보 자원화 방안을 위해 국제 표준 ISAD(G)와 국가기록원의 NAK/RMMS을 기반으로 목간 기록의 특수성에 기반한 기술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40]

먼저, 목간 기록의 분류는 남겨진 기록을 기준으로 새로운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각 목간 컬렉션이 틀에 박힌 형태가 아니므로 남겨지는 기록도 여러 가지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컬렉션은 맞춤식 분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목간 기록을 분류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목간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록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목간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거기에 쓰여진 내용이 생성되고 유통되고 폐기되는 과정에 대한 파악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기록물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목간 기록의 관계도 분류 (주제분류·유형분류·기능분류)를 선택하여

40) 국가기록원, 국가표준/문헌정보 — 기록관리과정 — 기록메타데이터 — 제1부: 원칙 KS X ISO 23081-1 (2020)
공공표준/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NAK 8:2022(v2.3)

설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한 개의 독립된 시리즈를 형성하거나 2개 이상을 합쳐서 하나의 시리즈로 구성할 수도 있다.[41)]

다음으로 국제 표준 기술 방안은 두 가지 타입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작업을 할 때 함께 설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목간기록의 경우에도 더블린 코어(Dublin Core)와 같이 웹상에서 자원을 기술,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규정한 국제적인 표준을 활용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메타데이터와의 원활한 정보자원의 공유, 교환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표준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해서는 더블린 코어를 기준으로 메타데이터 표준을 개발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더블린 코어를 활용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위한 기술요소는 영역을 정하지 않고 기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기술 요소 항목과 목간기록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표 6> 메타데이터 표준을 위한 기술 요소와 목간기록의 사례

식별자	정의	주석
1. Title	제목	기록물에 부여된 제목
2. Identifier	식별자	기록물에 부여된 고유한 식별자, 또는 검색이나 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생성된 식별자(URI, DOI, ISBN 포함)
3. Creator	저자, 생산자	기록물의 내용을 생성하고 책임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
4. Subject	주제, 키워드	기록물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을 주제어를 통해 기술(키워드, 분류기호 등)
5. Description	기술, 설명	기록물의 내용이나 목적에 대한 자유로운 설명
6. Publisher	발행자	자원의 이용/서비스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7. Date	일자	기록물의 생산, 접수와 같은 기록물 획득 행위가 발생한 일시

41) 더블린 코어 방식으로 NAK 8:2016(v 2.1)를 참조하여 개인수집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개발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승호, 「개인수집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방안 : 남진기 컬렉션을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22).

8. Type	자원 유형	기록물의 형태나 업무처리의 목적 또는 문서 작성 방식에 따른 구분
9. Medium	매체	기록물이 생산, 저장 또는 보존되는 물리적인 매체
10. Extent	크기	기록물의 수량이나 용량
11. Source	출처	기록물의 생성에 참조가 된 출처 자원에 대한 정보
12. Language	언어	기록물의 내용을 작성한 언어
12. Relation	관계	기록물과 다른 기록물간의 다양한 관계
13. Location	위치	기록물의 현재 소장 위치에 대한 정보
15. Right	권한	기록물의 이용 및 접근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한과 기록물의 권리에 대한 정보
16. Use History	이용이력	기록물 이용에 대한 이력
17. Preservation History	보존이력	기록물이 인수된 이후 행해진 보존에 관련된 이력 정보
18. Collection Method	수집방법	기록물 수집 경로 및 방법

식별자	정의	주석
1. Title	제목	논어목간
2. Identifier	식별자	URI, DOI, ISBN
3. Creator	저자, 생산자	
4. Subject	주제, 키워드	논어 (키워드 분류기호)
5. Description	기술, 설명	당시 목간에 논어를 기재하면서 공부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
6. Publisher	발행자	알수없음
7. Date	일자	6세기 후반
8. Type	자원 유형	기록물의 형태는 목간으로서, 문서작성 방식은 붓으로 내용을 기재함.
9. Medium	매체	기록물이 생산, 저장 또는 보존되는 물리적인 매체
10. Extent	크기	목간 1매, 가로 세로 높이
11. Source	출처	출토지:정백동 364호분 생산기관:
12. Language	언어	한자
12. Relation	관계	목간1과 목간2는 어떠한 관계를 가진다.
13. Location	위치	국립중앙박물관
15. Right	권한	국가 자원으로서 일반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
16. Use History	이용이력	기록물 이용에 대한 이력

17. Preservation History	보존이력	목간 자체에 대한 처리 이력
18. Collection Method	수집방법	출토기관 어디로부터 수집, 방법은 일괄 수집

위의 기술 내용은 e-뮤지엄에 소개되어 있는 목간에 대한 記述과 발굴 연구소, 한국목간학회 학회지, 한국목간총람 사전 등에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e-뮤지엄의 기본 기술 요소는 목간 사진은 별도로 하고, 명칭, 다른명칭, 국적, 시대/연도, 출토지, 재질, 크기, 소장품번호, 상세설명, 연관단어 등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세 기술 구성 요소로 판독결과, 전시정보 등이 있으나 현재 소개되어 있는 476건은 기본 항목만 기술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목간은 사진이 미수록되어 있거나 상세하게 기술이 되고 있지 못하다.

위의 두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들을 검토한 결과, 목간기록의 경우에는 그 기록의 특수성에 따라 국제표준 기술 원칙을 새로 추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ISSAD(G)와 ISSAR, NAK/RMMS를 기반으로 식별정보, 형태정보, 내용정보, 발굴정보, 참조정보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식별정보는 기록물을 식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목간의 관리번호를 말한다. 그리고 목간 소장처의 관리번호, e-뮤지엄 관리번호와 출토지를 표기하여 식별하기 편리하도록 기재한다. 형태정보는 목간의 형태에 대한 구성으로서, 재질, 크기, 모양, 사진 등에 대해 기술하여 목간의 물리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발굴정보는 발굴배경, 발굴기관, 발굴조사자를 기재하고, 발굴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타 발굴관련사항에 간단하게 기재한 후, 관련 내용은 파일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존정보는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실물을 관리하는 보존관리자, 보존처리유무 사용한 처리 내용, 보존 장소 등에 대하여 기술하는 항목을 설계한다.

내용정보는 판독결과를 우선적으로 기재하고, 목간의 내용에 역사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 정보와 기관 정보, 인물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참조 정보는 내

용과 관련이 있는 글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 등 참조 사항을 구성하고, 전시정보, 색인어, 발굴 연관정보, 관련 목간, 참고문헌 등을 기술하여 목간의 내용을 보다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편리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요소에 따라 대표적인 목간의 기술 요소를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42)]

<표 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간의 사례

대분류	중분류	목간의 사례
식별정보	관리번호	AA00001 (부여한 정보)
	소장처 관리번호	태안마도 1호선 31호
	e-뮤지엄 관리번호	태안 00000
형태정보	명칭	목간
	다른명칭	木簡
	출토지	충청남도 태안군
	분류	기타자료
	재질	나무
	크기	세로 37.8cm, 가로 4.0cm
	사진	
	재질	나무
내용정보	국적/시대	한국 - 고려
	판독결과(원본)	앞면 大卿庾宅上古阜郡田出太壹石入拾伍斗 뒷면 次知■祚
	판독결과(한글)	<앞면> 대경 유댁에 올림. 고부군 전출 콩 한 섬. 15말을 담음. <뒷면>차지(과)조
	목간의 상태	목간은 상단이 일부 유실되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인공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있다. 머리 부분은 유실되고 일부만 남아 있다. 몸통은 직사각형 형태로 하단부 오른쪽 일부가 결락되었다. 하지만 명문이 적혀 있는 부분은 유실되지 않았다. 몸통 뒷면에는 나무옹이가 하나 있다. 명문은 앞면 17자, 뒷면은 판독이 불가능한 묵서를 포함해서 총 4자다.
	역사적 배경	고려시대 선박들이 침몰된 곳은 대부분 조운로이다. 조운은 고려-조선시대 수운을 활용하여 세곡을 운반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운로 곧 바다길을 통해 서남해안에서 생산된 자기류, 곡식, 해산물 등을 수도인 개경 혹은 강화도로 운반하였다.
	단체정보	

42) 태안마도 1호선 31호 목간의 사례는 윤재석 편, 앞의 책, 주류성, 2022, 424~478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인물정보	대경유댁
	기타정보	
발굴정보	발굴배경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중 발굴
	발굴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기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발굴조사자	OOO
	기타 발굴관련사항	태안선은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좌초된 12세기 고려시대 선박. 좌초된 지역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의 무인도이다. 태안선에서는 목간과 함께 청자, 도기, 선체 부속구 등 23,000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수습되었다.
	목간 출수지점도	태안 대섬 태안선 목간 출수 지점 사진
보존정보	보존관리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OOO
	보존처리유무	유
	보존장소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문화재여부	
참조정보	다른 글자해석	
	보도정보	
	관련목간	태안 마도 1호선 출수 목간 73점
	전시정보	
	색인어	태안 대섬 정죽리 고부
	참고문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2. 임경희·최연식, 「해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 『목간과 문자』 1, 한국목간학회, 2008. 김기섭, 「고려 마도 1·2호선 목간을 통해 본 租의 수취방식과 토지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63, 한국중세사학회, 2020. 등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간 기록물의 기술요소는 6개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식별정보, 형태정보, 내용정보, 발굴정보, 보존정보, 참조정보이다. 기술 요소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식별정보로서, 관리번호, 소장처 관리번호, e-뮤지엄 관리번호 등을 기입하여 목간기록을 제어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진이 안 올려져 있고 소장기관 관리번호와 e-뮤지엄 관리번호를 매칭하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추후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형태정보는 재질, 크기, 모양, 사진 등이다.

또한 목간 기록의 기술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정보이다. 이 부분은 기존의 국제 표준 기술규칙에서는 없는 항목으로서, 목간기록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판독결과(원본), 판독결과(한글), 역사적 배경에서는 목간의 내용에 관한 시대적 배경을 기술한다. 그리고 단체정보와 인물정보를 통해 목간 내용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목간 기록에서 특수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하였다. 그것은 발굴배경, 발굴기관, 발굴조사자, 기타 발굴관련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항목은 고고학의 조사 정보를 총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그리고 참조정보에는 목간기록이 다른 글자로 해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도와 전시정보, 색인어, 참고문헌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목간 기록의 맥락을 파악하고, 목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본고는 기존 박물관에서 다루고 있는 유물 목간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그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기록물의 내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를 국제 표준에 의해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통해 박물관에 산재해 있는 목간 유물의 디지털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목간 기록을 정보자원화하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국립중앙박물관의 표준유물관리시스템과의 비교, ‘목간’의 구체적인 기록정보 조직화 방법, 국제적인 메타데이터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란다.

목간기록에 주목해야 하는 필요성은 그간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기록

문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종이기록물'에 집중되어 왔으나, 목간이라는 기록물에 기재되어 내용을 상호 보완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고대사의 역사상을 새롭게 복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학과 불교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사의 내면을 관통하는 지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산의 양상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목간 기록은 목간이라는 형태보다 거기에 수록된 글자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출토하고 있는 목간 기록물은 박물관이나 연구소의 형편에 따라 상당히 다른 물리적 보존 조건과 記述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발굴된 목간은 1,100여 건인데 비하여 국내 박물관의 총합 채널인 e-뮤지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각 박물관에서는 476건의 목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기술 요소는 시대, 형태, 재질, 크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내용이 자세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박물관에서는 목간을 유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목간에 쓰여진 기록물의 내용과 관련된 기록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만으로는 목간의 내용과 관련된 출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ISAD(G), ISSAR, NAK/RMMS 등 국제 표준 기술 요소 항목을 바탕으로, 유물로서의 출토 정보나 맥락정보를 기술하고, 출토자 등 한국 목간 기록물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대·중·소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대분류는 6개의 범주로 나누어 기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목간은 박물관별로 관리 양상이 다르며 기술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다르다. 따라서 국제 표준에 의해 기술 규칙을 다루면 체계적인 한국 목간의 지식정보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본 목간과 중국 목간의 경우에도 분류가 다소 다르지만, 국제 표준 기술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한·중·일의 목간에 대한 연구는 근래 동아시아 역사학계의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 일국사적 관점의 편향성을 보완할 뿐 아니라 한국고대사를 동아시아 고대 세계의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 동력기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더욱 나아가 역사학계, 고고학계 등과 협력하여 기록학계에서도 목간의 디지털 지식 정보를 통합 체계로 만들어 냄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간의 지식 정보를 자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02월 1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2월 28일부터 0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학술논문>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현용 ·준현용 기록물용, NAK-P-2007-11)」(공공표준), 2007.

김경남,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수집현황과 기술규칙 제안」, 『기록학연구』 71, 한국기록학회, 2022, 91~130쪽.

김상신, 「젠킨슨과 쉘렌버그의 기록학 이론 비교연구」, 『기록학연구』 50, 한국기록학회, 2016, 61~95쪽.

김성희,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를 통한 맥락정보의 구축 및 교환: ISAAR(CPF) 2판과 EAC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비블아학회, 2007, 87~110쪽.

김익한, 「기록의 속성과 메타데이터 표준을 통해 본 한국의 기록, 기록기술」, 『기록학연구』 10, 2005, 3~26쪽.

남궁황, 「ISAD에 기반한 공문서 메타데이터 요소 설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1), 2004, 231~251쪽.

남권희, 「한국 도서관사 연구자료로서의 목간기록 및 서지자료로서의 목간 분석」, 『서지학연구』 84, 한국서지학회, 2020, 31~56쪽.

남태우·이승민, 「메타데이터의 의미론적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한국문헌정보학회, 2010, 373~393쪽.

방효순, 「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한국기록관리학회, 2002, 69~92쪽.

설문원, 「기록관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 분석: 출처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2, 한국기록학회, 2017, 59~117쪽.

설문원·조원희,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의 실행 적합성 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215~243쪽.

윤선태,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신라사학회, 2016, 387~421쪽.

이경섭,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신라문화』 42, 신라문화원, 2013, 81~110쪽.

이승호, 「개인수집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방안 : 남진기 컬렉션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주보돈,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 한국목간학회, 2008,

31~47쪽.
한정훈,「고대 목간의 형태 재분류와 고려 목간과의 비교-성산산성 목간을 중심으로」,『목간과 문자』16, 한국목간학회, 2016, 161~184쪽.
Shephrd, Elizabeth and Victoria West, "Are ISO 15489-1: 2001.
ISAD(G) compatible? Part 1, Records Management Journal 13(1), 2003.
ICA. ISAD(G)2: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Ottaw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committee on descriptive standards. 2000.
Day, Michael. "reservation metadata initiatives: practicality, sustainability, and interoperability." [cited 2024. 3. 27]. (file:///C:/Users/USER/Downloads/Preservation_metadata_initiatives_practicality_sus.pdf), 2004

<단행본>

T. R.. Sehellenberg,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노영희·한미경,『기록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한국학술정보, 2008.
Fredric. M. Miller, 조경구 역,『아카이브와 메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진리탐구, 2002.
미카미 요시타카 지음, 오수문 옮김,『일본 고대의 문자와 지방사회』, 2024.
셀렌버그,『현대 기록보존의 실제』, 1956.
윤재석 편,『동아시아 목간 총람 한국목간편』, 주류성, 2022.
이승호·이완석·방국화,『물품으로 본 고대 유라시아 세계』, 경인문화사, 2022.
이해영,『기록의 분류 기술과 검색도구』, 선인, 2020.
한국기록관리학회,『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조은글터, 2018.
한국기록관리학회,『기록의 세계』, 2024.
한국기록학회 편,『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법령 및 웹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https:// www.emuseum.go.kr/main]
국가기록원, 국가표준/문헌정보 — 기록관리과정 — 기록메타데이터 — 제1부: 원칙 KS X ISO 23081-1 (2020)
공공표준/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NAK 8:2022(v2.3)

▦ Abstract

To Resource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Korean Wooden Tablet Records

: Focusing on Metadata International Technical Elements

Kim, Kyung-nam

This paper conceptualizes the handling of wooden tablets in existing museums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val science and examines the management practices. Based on provenance considerations, it proposes the design of metadata technical element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to enable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and context of records. Drawing upon international standard technical elements such as ISAD(G), ISSAR, NAK/RMMS, it describes excavation details and contextual information related to wooden tablets, and categorizes the necessary information from Korean wooden tablet archival materials into large, medium, and small classifications. Furthermore, it suggests subdividing the primary classification into six categories. Through these efforts, it presents a theoretical discussion on utilizing digital methods to digitize and resource wooden tablet records within museums, laying the groundwork for digital integration research on wooden tablet archival records across Korea, China, and Japan.

keywords :
Korean wooden tablet, metadata, authority record technology, knowledge information